

# “한미, 김정은 방중에 적극적 태도”

### 中 외교부 “중, 북미대화 지지… 북중 고위층 교류 유지 미중 무역협상과 연관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은 이번 방중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투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과 북한이 우방으로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김 위원장과 회담할 당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연락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변인은 또 “북중 모두 상호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양국은 북중 관

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한반도 영구적인 안정을 실현하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지도자와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이나 미국 모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두 대변인은 “중국은 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동력 역할을 해왔다”면서 “과거 중국이 제안하

고 주도한 6차 회담 과정은 긍정적 성과를 냈고, 향후에도 중국은 관련 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은 시종일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는지는 질문에 두 대변인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다만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양국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정세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북미 대화를 진행하고, 이런 대화가 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를 지

지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과 연관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외교 일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부 일정이 겹치는 것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두 대변인은 “김 위원장 방중과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북한은 우리 외교 정책의 한계 중점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투명하고 오픈돼 있다”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도 있고, 변함없는 단호한 결의도 있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 ‘전북의 재발전’ 인기 좋네?

### 2009년 4월 개설 후 도 블로그 누적방문자 1천만명 달성

전북도 공식블로그 ‘전북의 재발전’이 누적방문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4월 개설한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전’이 개설 10년만인 1월, 누적방문자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의 재발전’은 최근 3년 평균 방문자수가 166만3,721명으로 44%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 대표 온라인 홍보 매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월 방문자수가 23만6,627명으로 블로그 개설 이래 월별 방문자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전’은 정책, 여행, 일상, 문화 등 4개의 메뉴로 나뉘어 전라북도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한 사진과 영상, 기사로 담고 있다.

매년 40명씩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 만들어낸 전북 곳곳의 숨은 매력과 다양한 소식들은 지난해 말 기준 네이버 포털사이트 주제를 색선 메인화면에 24회 노출돼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받는 등 전라북도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 전북과 관련한 영상, 일러스트에 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블로그는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계획



이다.

도는 방문자 수 1천만 명 돌파를 기념해 1월(1.10~31) 한 달간 블로그 내 ‘전북 2분기’ 댓글 달기와 ‘1천만 돌파 축전 이미지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 당첨자 30명에게는 도지사 인증상품인 김제 총채보리 한우(1명), 고산 포고버섯(3명), 완주 동상 꽃감(4명), 커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전북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전북도의 숨은 매력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내 화재발생

### ‘주의’ 단계 돌입

#### 위험지수 21.09로 나타나

전북도내 화재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에 들어갔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8년 동안 2만여 건의 화재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날 도내 화재발생 위험지수가 21.09로 나타났다.

화재위험 지수는 0~20은 ‘보통’, 21~40 ‘주의’, 41~60 ‘경계’, 61~80 ‘위험’, 81~100 ‘매우위험’으로 구분한다.

지역별 화재위험 지수는 순창 29.79, 완주 25.88, 고창 25.56, 진안 25, 임실 22.87, 부안 22.5, 남원 22.07, 김제·장수 22, 무주 21.34, 정읍 20.11, 익산 12.95, 군산 10.76, 전주 7.21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전북에서는 익산 주택 화재와 전주 공장 화재 등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화재취약시기 특별대책을 수립해 화재발생 주의보를 자체 발령하고 화재 대비 강화에 나섰다.

특검노인 등 취약계층 난방용품 사용법 교육, 기초소방시설 점검, 화재취약대상 3404곳 소방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대해 소방서장 주도 적응훈련으로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신년 단배식** 2019년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신년 단배식이 8일 전북 전주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떡케익을 지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규정 제정·운영

국가보훈처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던 나라사랑교육이 이념편향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훈교육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

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재발방지위는 이념 편향 논란을 불러온 나라사랑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내용과 자료 등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고,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위는 나라사랑교육과 같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이달 중으로 보훈·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외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2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시스

## 도, ‘내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90% 넘을 듯’

### 전국 도단위 중 가장 높아

전북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도단위 지역 중 가장 높고, 2020년엔 90%를 넘어 도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5.5%로 전국 도지역 평균 보급률인 72.7%에 비해 13% 가량 높고 도시지역(99.4%)과의 격차도 13.9%로 전국 평균 도시·농촌 간 격차 26.8%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2020년이면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넘어서서 농어촌지역 도민들도 도시지역에 근접한 물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년보다 221억원 증액(78%)

된 50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어촌 물복지 개선에 노력한다.

도는 2019년에도 농어촌지역 25개 지구에 264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91.5km를 확충할 계획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히 올해 정부의 생활SOC 사업 지원 기조에 따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신규사업 8개 도서 등 9개 도시지역에도 159억원을 투자하여 선유도~방축도 간 해저관로 등 관로 8.2km, 식수원 저수지 1개소, 취정수장 2개소를 확충·정비하여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82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로 55.4km, 관정 2개소, 물탱크 3개소 등을 개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